

주간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6.1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페이스북, 폭력시위 유도 계정 삭제

- 6.7 미국 언론은 페이스북이 팔로워에게 인종차별 반대시위에서 충기를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백인우월주의 성향 계정 약 190개를 발굴, 삭제했다고 보도
 - * 삭제된 계정 대다수는 극우단체 'Proud Boys' 및 'American Guard'와 연계

아 · 태평양

○ 韓 경찰, 다크웹* 추적시스템 확대 예정

- 6.9 경찰청은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(Dint)을 구축하여, 5월 중순부터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테러 정보를 포함한 보안·국제범죄 영역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발표
 - *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,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

○ 싱가포르, 테러자금 조달 방지 위해 '카지노 규정' 강화 추진

- 6.7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(CRA)*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설정한 국제표준 준수를 위해 카지노 현금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현행 1만 싱가포르달러에서 5천 싱가포르달러로 낮출 것이라 발표
 - * 사행산업 관련 법률 제정 및 규제·감독 권한을 가진 법적기구('08.4.2 설립)

유럽

○ 프랑스, '알카에다 마그렙지부'(AQIM) 수장 제거

- 6.6 「파를리」 프랑스 국방장관은 프랑스군 주도의 연합군이 지난 3일 말리 북부지역에서 대테러작전 전개, '알카에다 마그렙지부'(AQIM) 수장 「압델말렉 드루크델」과 수행원들을 사살했다고 발표

* '98년 北아프리카에서 외세축출·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

** 「파를리」 佛장관은 “이번 공격으로 北·西아프리카 테러단체들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”고 평가

○ 터키 의회, 테러 혐의로 자국 의원 제명

- 6.5 터키 의회는 쿠르드노동자당(PKK)과 연루된 혐의로 9년형을 선고 받은 「파리소울라르」 의원 및 터키군의 '올리브 가지 작전'*을 비판해 6년 3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「귀벤」 의원을 테러 관련 혐의로 제명

* '18년 터키군의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 아프린에서 쿠르드민병대(YPG)를 몰아내기 위해 시행한 작전으로 1천여명의 쿠르드 민병대원이 사망

중 동

○ ISIS, 중동에서 再 준동 우려

- 6.8 英 파이낸셜타임스는 美 주도 연합군에 의해 영토를 모두 상실한 ISIS가 △ 美 주도 연합군의 일부 철군, △ 美와 이란 간 긴장 고조, △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, △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 등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에서 再 결집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거점 공습 및 무력화

- 6.7 나이지리아 軍은 잠파라州에서 보코하람의 거점을 공습해 무기고 및 탄약고를 파괴하고 핵심 간부들을 사살하였으며, 보코하람이 장악 중인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항공지원작전을 바탕으로 대테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 강조

독일, 콜로그네市 네일밤(Nail Bomb) 테러

- '04.6.9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콜로그네시市的 터키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네일밤(못 폭탄)이 터져 22명이 부상
 - * 폭발로 미용실이 거의 파괴되고 주변상점·주차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으며, 주차차량·건물벽 등에서 약 700~800개의 못 파편이 확인
 - CCTV 조사 결과 범인들이 못폭탄이 설치된 자전거를 미용실 앞에 세워두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, 용의자 추적에는 실패
- '11.11월 튀링겐州에서 은행강도에 실패한 범인 중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고, 1명이 자수하면서 同 네일밤 테러사건의 전모가 확인
 - 수사결과, 자수한 '베아테 쉐페'(76生, 여)는 '우베 문틀로스'(75生), '우베 뵘하르트'(79生)와 함께 '98년 신나치주의 테러단체인 「민족 사회주의 지하동맹」 (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)을 창설한 후
 - '00~'07년간 터키 출신 이민자 등 10명 살해 및 2회의 폭탄공격과 수차례 은행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민자 사회에 공포감을 확산시켜 독일을 떠나도록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

< 민족사회주의 지하동맹(NSU) >

- (명칭) 민족사회주의 지하동맹(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)
- (창설·성격) '98년 / 극우 신나치주의 테러단체
- (목표) 이민자 및 외국인 살해
- (구성원) 129명(독일 정보기관 조사)
- (주요범죄) '99년 뉘른베르그 폭탄테러, '01년 및 '04년 콜로그네시(市) 폭탄 테러, '00.9월~'06.4월 경찰관 1명 살해, 터키 이민자 8명 살해, 그리스 이민자 1명 살해, 은행강도 14건